

지역 **메아리**

**김제장애인복지관, 김치담그기 행사**

김제시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강정원)은 7일부터 8일까지(2일간) 김제지평선 홍보클럽(회장 이영애) 회원 20여명의 후원과 봉사로 장애인을 위한 "사랑으로 버무린 김장김치 담그기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김장김치 담그기 행사를 위해 김제지평선홍보클럽에서 150만원 상당의 재료비 후원과 회원들이 방문하여 직접 팔을 걷어 붙이고 정성 가득한 엄마 손 김장김치를 담기 위해 땀방울을 흘리며 손맛을 내는데 전념했다.

올해 새롭게 취임한 김제지평선홍보클럽 이영애 회장은 "겨울이 시작된다"는 입동에 동절기 준비를 위해 김장김치를 만들어 장애인들에게 맛있는 김치를 드실 수 있도록 도움이 된 것 같아 기쁘고, 앞으로도 장애인과 어려운 이웃을 위해 관심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다"고 전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생활체육교실 '우수상' 자축**

김제시 성덕면(면장 신형순) 생활체육교실(회장 하경순) 회원들은 최근 제8회 평생학습한마당 주민자치 프로그램 경연대회에 참가하여 그 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선보여 우수상을 수상했다.

백연월 강사가 진행하는 생활체육교실은 매주 화요일 2시간 동안 진행되며 50여명의 주민이 모여 신나는 음악에 맞춰 체조를 하면서 일상의 스트레스를 날리며 짧은 기운을 발산하는 프로그램으로, 올해 1월 주민들의 활기차고 건강한 생활을 지원하고자 신설되어 호흡을 맞춘 지 채 10개월도 되지 않아 경연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재향군인회, 백령도 현장견학**

김제시 재향군인회(회장 박영봉)가 지난 6~7일 1박 2일 일정으로 서해최북단 백령도 안보현장견학을 실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안보현장견학은 최근 계속되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핵실험으로 안보를 위협받는 상황에서 서해 최전방 방문을 통해 투철한 국가관을 확립하고 애국심과 안보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마련했다.

임원과 회원들 40여명은 8일 인천항을 출발, 백령도에 도착하여 친안함 피격사건 현장을 찾아 '친안함 46용사 위령탑'에 참배한후 서해5도 사수 결의문을 통해 북핵은 지난 친안함피격사건, 연평도 포격도발 등 서해도의 기습도발로 혼란을 초래하는 망상을 버리고 북한한계선(NLL)을 침공하는 망동을 규탄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 아동권리주간축제 개최

## 완주군, 아이들 행사 직접 기획... 신선하고 참신한 프로그램 구성

유니세프(UNICEF) 아동친화도시 완주군이 아동이 직접 기획하고, 참여하는 '제1회 아동권리주간축제'를 연다. 8일 완주군은 세계어린이날을 기념해 오는 18일 완주군청 일원에서 아동권리주간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완주군 어린이·청소년위원회,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완주송아리공동육아(완주놀이포럼)등 아동을 중심으로 민·관·학이 공동으로 추진한다.

특히 아동들이 행사를 직접 기획하면서 신선하고, 참신한 축제 프로그램들이 구성돼 주목받고 있다.

"뚝뚝뚝 상상놀이터 디자인터"은 아동들이 직접 디자인한 놀이터를 직접

만들어보는 프로그램이다. 아동들은 전문가의 도움을 얻어 스스로가 꿈꾸는 '제1회 아동권리주간축제'를 연다. 참가자들은 아동의 디자인을 토대로 직접 놀이터를 만들고, 시연해볼 수 있다.

또 아동권리 선포식에서 발표될 '완주군 아동권리 헌장'도 아동들이 직접 작성해 그 내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밖에도 행사의 사회를 청소년들이 맡고, 청소년밴드가 자작곡을 발표하는 등 모든 행사들이 아동·청소년 중심으로 진행된다.

행사 당일 오전에는 포럼을 통해 이승이 우석대 교수가 아동친화도시 중장기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오해섭 한

국청소년정책연구원 박사가 '완주군 아동청소년의 참여활성화 방안'을 대 학생참여위원회가 '아동친화도시 완주군 정책제안'을 이어간다. 마지막 토론에서는 학부모, 청소년, 전문가들이 참여해 자유로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아동친화도시에 가장 중요한 원칙은 아동 누구나 자신과 관련된 일에 참여하는 기회를 갖는 것이다"며 "아동과 관련된 다양한 사업에 아동의 참여를 장려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아동의 권리가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 1번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완주=이종복 기자

# 김제농업기계박람회 화려하게 개막

## 농업 정보 교환 기회 의 장

전국 최대 규모의 '2017 김제농업기계박람회'가 8일 김제 벽골제에서 농업인과 관련 단체, 농기계 업체 관계자 및 주민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화려하게 열렸다.

개막식에는 이진식 김제시장, 내병문 시장의장 등 주요 내빈 50여명이 참석해 2015년에 이어 두 번째를 맞는 농업기계 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했다.

이번 박람회는 전국 133개 우수농기계 업체에서 390개 기종을 777개 부스에 전시해 농업인들의 많은 호응을 얻었다. 전시부스에는 과수, 경운·정지기, 농산가공기계, 농업바이오·비료·농약·종자·육묘기계, 수확용기계, 시설원예·하우스·관수자재, 파종기 및 최첨단 ICT융복합 농기계 시설·자재 등에 이르기까지 수도작·전작·과수·축산·시설원예 분야의 다양한 농업기계를 전시하여 농업인들은 우리나라 농업기계분야의 발전과정을 한 눈에 볼 수 있었고, 농업인 상호간에 농업 정보도 교환하는 기회의 장이 되었다.



전국 최대 규모의 '2017 김제농업기계박람회'가 8일 김제 벽골제에서 농업인과 관련 단체, 농기계 업체 관계자 및 주민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화려하게 열렸다.

특히 행사장을 새롭게 정비하여 전시장 및 연시장을 구성하였고 방문객의 관람 동선을 최대한 고려하여 편안한 관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치하여 박람회장을 찾은 지역 주민과 전국 각지 농업인 및 농기계 업체 관계자의 호평을 받았다.

이밖에도 관광홍보관, 기업유치 홍보관, 귀농귀촌 홍보관에는 상담 및

문의로 종일 분주했고, 농특산물 홍보관, 먹거리 장터에도 많은 관람객이 몰렸다.

박람회 관계자는 "개막 당일부터 최신행 농기계에 대한 문의가 쇄도하고 구매계약 건수가 어느 박람회 보다 많아 성공적인 박람회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번 박람회는 오는 10일 까지 열린다. /김제=곽노태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 농촌마을 교류 물꼬 튼다

### 봉동 어울림 공동체, 구암마을 방문... 복떡 만들기 체험

완주 아파트 르네상스 사업으로 만난 봉동읍 아파트 어울림 공동체가 구암면 구암마을과 교류행사를 가졌다.

8일 완주군에 따르면 봉동읍 소재 렉시안, 벽산, 모아엘가, 광신 아파트 연합인 어울림 공동체 회원 10명이 지난 6일 구암면 구암마을을 방문해 복떡 만들기 체험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체험은 완주군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사업인 '아파트 르네상스 사업' 일환으로 참가자들은 농촌마을을 방문해 마을 소득사업인 떡 만들기를 체험했다.

이날 회원들의 손으로 정성스럽게 만든 떡은 단지 내 고3 수험생을 둔 가족과 독거노인에게 나누면서 의미를 더했다.

김연희 공동체 대표는 "이번 체험으로 우리 지역 농촌마을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갖게 됐고 안전

한 농산품과 로컬푸드도 가공한 생선품에 대해서도 자부심을 갖게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강령석 공동체협력과장은 "농촌복합군인 완주군이 발전하려면 도심과 농촌 교류 활성화가 매우 중요하다"며 "아파트 르네상스 사업이 아파트 주민의 소통을 넘어 완주군 소통의 촉매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완주군은 올해부터 도심과 농촌을 연결하는 공동체 교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9월 2일, 9월 9일에는 완주군 모든 공동체가 어울리는 '공동체 어울림 더울림 한마당'을 개최하기도 했다.

또 향후에는 공동체 교류 사업을 확대해 아파트와 농촌을 잇는 자매결연, 농촌 팜투어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완주=이종복 기자

## 완주테크노밸리 제2일반산단 조기착공 선정

완주군이 공무원 규제개혁 최우수 사례로 '완주테크노밸리 제2일반산단 조기착공'을 선정했다.

8일 완주군은 '2017 완주군 공무원 규제개혁 우수사례 공모' 제출작을 심사한 결과 최우수 1건, 우수 2건, 장려 3건 등 총 6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최우수 사례에 '완주테크노밸리 제2일반산단 조기착공(공영개발과)'이 선정됐으며, 우수 사례에는 '이서특별농공단지 개발계획변경(도시개발과)', '농업용 저장창고 인허가절차 간소화(농업농촌식품과)', 장려에 '소하천 제방도로 점용허가 규제완화(재난안전과)', '무허가축사 적법화(산림축산과)', '정북대 창업보육센터 기업애로해소(일자리경제과)'가 각각 선정됐다.

최우수로 선정된 완주테크노밸리 조기착공은 전라북도과 협력행정청을 통해 토지보상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조기착공이라는 결과를 달성한 것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번 공모는 완주군이 다양한 규제개혁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확산시키고자 지난 한 달간 산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규제완화를 통한 지역투자사태 및 행태개선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사례 등 총 11건의 사례를 접수했다.

이번에 수상작으로 선정된 관련 직원들에게는 표창과 함께 하반기 인사 가점이 반영될 예정이다.

고재욱 부군수는 "앞으로도 기업규제·주민불편규제 애로사항들을 발굴 개선하여 으뜸완주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진안고원**  
고향의 정(情)이 살아있는  
진안고원 고향할머니장터  
장~ 보러 오세요  
운영일자: 매 장날 운영(4,9일장)  
장 소: 진안고원시장 중앙광장 내

진안고원 청정농산물 판매

행사문의  
진안군청 전택산업과  
063-430-2951